



한국교육자선교회

Korea Christian Educator's Association

교육하며 선교하고
선교하며 교육하자!

수신 : 이사, 전국 지방회 및 지역회 임원 및 중앙회 임원

참조 : 각 지방회 및 지역회 사무국장, 총무

제목 : 춘천 한마음교회 신학과 관련한 한국교육자선교회 입장

1.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교선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사님, 지방회와 지역회 임원, 그리고 중앙회 임원님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 최근 춘천 한마음교회 신학과 관련하여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한국교육자선교회의 입장을 불임으로 공지하오니 잘 숙지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춘천 한마음교회 신학과 관련한 한국교육자선교회 입장문 1부. 끝.

사단법인 한국교육자선교회 중앙회장 김종화

사단법인 한국교육자선교회 이 사 장 김형태



우03129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30 1312호(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Tel (02)744-1330, Fax (02)764-1483 <http://www.kcea.net>
사무총장 오세희 Email: kceanet@daum.net

춘천 한마음교회 신학과 관련한 한국교육자선교회 입장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한국교육자선교회(이하 한교선) 회원님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교육선교의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교선이 40주년을 넘어 이제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동안 많은 선배 및 회원님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교선은 창립의 시대와 부흥의 시대를 거쳐 41주년을 시작하는 지금은 비전의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립 당시의 “교육하며 선교하고 선교하며 교육하자”는 선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 중차대한 때에 뜻하지 않게 춘천 한마음교회의 신학적 문제가 제기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원님들의 이해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발표 취지 및 경과

한교선은 본 건에 대한 주요 교단들의 공식 입장을 검토하고, 관련된 회원들과 여러차례 면담을 가졌고 많은 분들의 지도 조언을 받아, 2017.11.14.에 “한교선 화합을 위한 호소문”과 2017.12.1.에 “신학적 견해에 관한 한교선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춘천 한마음교회 신학과 관련한 공개적인 글과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이행되지 않다 보니 회원들 간의 오해와 불화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장과 중앙회장 및 임원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여러 차례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 본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본 건 판단의 주요 관점

한교선에서는 본 건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상당한 자료를 참고했고, 견해를 달리하는 회원들과 면담하며 의견을 교환하였고, 특히 주요 교단들의 공식 입장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 선교회는 해당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선교회는 초교파로 구성된 교육선교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따라서, 우리 선교회는 해당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통교단들의 총회보고서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3. 해당 교회에 대한 주요 각 교단의 총회 보고서

한교선의 입장 발표에 대한 근거 자료로 주요 교단의 보고서를 제시하겠습니다.

가. 기독교한국침례회(소속 교단)

1) 김성로 목사 신학조사위원회 구성(2017.1.)

[‘침례신문’에 결과 보고서 발표(2017.8.26.)] : 김성로 목사의 신학에 중대한 오류(양태론, 십자가 폄하, 이중 제사, 성경해석의 오류 등)가 있으며 추가적 조사와 검증이 필요

2) 제108회 총회 이단대책위원회(2018.9.18)

[총회 결론 ‘이단성이 없음’] : 신학적 해석의 오류로 인한 결과이고, 문제의 부분은 이미 수정, 보완됐기에 이단으로 볼 수 없음.

3) 당사자 의견(김성로 목사) : 이렇게 될 줄 몰랐으며 문제의 책은 전량 회수하고 신학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 보완했다. 지적된 부분은 시정하고 지도 자문을 적극 수용하겠다.

4) 이대위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1년간 김호경, 노주하 목사를 지도 및 자문위원으로 파송하기로 함.

나.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백석 대신)

- 1) 2017. 정기총회에서 이단대책위원회가 1년간 연구한 뒤 2018 총회에서 발표하기로 결의
- 2) 2018. 제103회 대신 총회(2018.9.10.)

- * 십자가 복음의 폄하 발언
- * 정통교회 십자가 중심의 복음 비판
- * 부활 후 하늘 성소의 제사(이중 제사) 문제에 심각성이 인정

[총회 결론 ‘2년동안 예의주시’] : 이단성이 있으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소속 교단의 지도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2년 동안 “예의주시”하기로 함.

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 1) 2017. 정기총회에 김성로 목사의 이단성 조사 헌의안 제출(2017.9.19.)
신학조사위원회와 이단대책위원회가 1년간 공동 연구 후 2018년 총회에 결과 보고 예정.
1년간은 총회 산하 교회와 목회자, 성도는 “참여를 금지” 한다.
- 2) 2018. 제68회 총회(2018.9.11.)에서 김성로 목사에 대해 “참여자제” 결론을 내림
[부활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종종 비성경적 오류를 가르쳐 왔다는 점과 대중 집회 때 성경에 대해 균형을 잃은 신앙을 갖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회 참석을 금하는 결론”을 내림. 김성로목사의 “고치겠다”는 약속을 높이 평가하지만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평가.]

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 1) 2017. 제102회 총회(2017.9.21.)에서 이단대책위원회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참여금지” 대상으로 규정
* 십자가 부활 이원화
*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폄훼하고 왜곡
[그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그의 설교나 교인들의 간증을 듣거나 그가 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비성경적인 부활복음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2) 2018. 제103회 총회(2018.9.11.)에서는 해당 사안의 헌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언급이 없으므로 제102회 총회에서의 이단대책위원회 조사결과가 유효하고, 지속된다는 자문을 받았음.

4. 한교선의 결정 내용

첫째, 춘천 한마음교회에 소속된 한교선 회원들은 한교선 내에서의 임원 활동을 자제한다.

둘째, 동 교회 소속 회원이 주관하는 한교선 행사는 중앙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한다.

셋째, 동 교회 신학과 관련하여 한교선 회원들은 어떠한 의견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넷째, 한교선의 공식적인 매체(카톡, 문자, 메일 등)는 교육선교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한정한다.

위와 같은 한교선의 결정 내용은 해당 교회 당면 문제가 해소될 때 까지로 하며, 그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7년에 소속 교단으로부터 춘천 한마음교회에 신학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어 추가적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고, 2018년에는 제 108회 총회에서 문제의 부분은 수정·보완되었기에 이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1년간 김호경, 노주하 목사를 지도 및 자문위원으로 파송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모두 유의하여 소속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하였고

둘째, 뿐만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는 여전히 “예의주시”(대신), “참여자제”(고신), “참여금지”(합동) 등의 권고를 하고 있어, 각 교단의 입장과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이에 대해 소속 교단의 결정이 우선이라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선교회는 초교파적 선교단체이므로 여러 교단의 의견도 함께 존중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공표하였으나 시간과 장소 및 전국에서 대의원들이 모이기가 실제 어려울뿐더러 입장이 서로 상반되어 감정적인 표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최하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당부의 말씀

우리 한교선은 40년 동안 교육선교의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교파로 모이다 보니 신학적인 문제로 인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학적인 문제는 우리 선교회에서는 논쟁을 할 범위 밖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통적인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면서 선교회 본래의 목적인 학원 선교활동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인하여 불편함과 상처를 받은 회원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교선 회원 여러분! 우리 선교회원 한 분 한 분 모두 정금같이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현안 문제가 잘 해결되어 분명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직 복음의 본질을 구현하며 한교선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말과 글로 의견을 제시하는 일에 깊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25

(사)한국교육자선교회 중앙회장 김종화 장로

(사)한국교육자선교회 이 사 장 김형태 장로